

데스크사각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지금 이 글은 푸치니의 현악 4중주곡 '국화'를 들으며 쓴다. 푸치니가 1890년에 작곡한 '국화'는 그가 아미데오 대공의 서거 소식을 듣고 하트만에 쓴 곡이라고 한다. '라 보엠' 등 오페라로 워낙 유명한 푸치니인지만 이 곡은 처음 접했는데, 애초 띠된 선율이 인상적이다.

낯선 푸치니의 곡을 만난 건 윤광준의 '심미안 수업' 중에서 발견한 한 구절 덕이다. KBS FM '명연주 명음반' 진행자 정만섭이 홈페이지에 올린 '어느 날'의 선곡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날 진행자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일명 장송행진곡), 바그너의 죽음을 예감하며 2악장을 작곡한 부르크의 '교향곡 7번', 피아졸라의 '천사의 죽음', 코렐리의 '라 폴리아'를 선곡했다. '어느 날'은 2018년 '4월 16일'이다.

영화 이야기를 쓰려한다. 영화 속 '아빠'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누군가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달라 부탁한다. "출국 심사대로 가라"는 직원의 말에도 아빠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

엄마 나야

도 아니고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벌개진 눈으로 외치던 아빠는 "대체 누구 여권이나"는 질문에 나지막이 말한다. "제 앎니다. 제 애예요. 제 아들입니다." 여권을 만들긴 했지만 한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아빠가 해주고 싶었던 일이었다. 거실에서 쪽잠을 자는 '엄마' 역시 아들을 잊지 못했다. 가장 좋은 친구였던 오빠를 잃은 '동생'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러워 안쓰럽다. 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아들과 오빠의 '생일날', 그를 기억하는 아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된 '생일시'를 받는다.

세월호 다룬 영화 '생일'

"늦은 밤이나 새벽/아무런 기척도 없는데/현관 센서등이 반짝/켜지긴 했지요?//놀라지 마세요/어머니 저예요//이제 저는 보이지 않게 가고/보이지 않게/차려 놓으신 밥을 먹고/보이지 않게/어머니를 안아요//다시 놓지 않으려/당신을 꼭꼭 안아요//그때, 센서등이 반짝 켜지는 거예요."('엄마 나야' 부분)

설경구·전도연 주연의 영화 '생일'은 세월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잔잔히 흘러간다. 감독의 말처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 더욱 마음에 남는다. 영화에 등장하

는 '생일시'는 '아이들에게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남겨진 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정신과 의사 정혜신 등이 기획한 행사였다. 34명 단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34명의 작가가 '시'로 썼고 시집 '엄마 나야' (난다 간)로 출간됐다.

예술이라는 장르로 애도하고, 기억하고, 추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월호 관련 영화 제작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유족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세월호는 '민감한 이야기' 인터라 긴장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다는 감상평이 꽤 많았다.

영화 '생일'에서 느낀 조심스러움과 격정을 나는 '오월광주'를 다룬 작품에서 느끼고 한다. 몇년 전 서울의 20대 관객들 사이에서 고선웅 연출의 연극 '푸르른 날에'를 관람했을 때, 긴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작품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광주시는 최근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3억원을 들여 관현악·뮤지컬 제작 등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교향시와 서곡 등 관현악 작품을 발표했고 올해는 창작뮤지컬 갈라 콘서트, 40주년인 내년에는 완성작을 무대에 올린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관현악 작품들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다.

뮤지컬 '님을 위한 행진곡'은 지나치게 '광주만의 이야기'에 머물리지 않기를 바란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건 프랑스가 배경이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작품이 긴 생명력을 얻으려면 보편적 정서에 호응해야한다.

'오월 광주'를 넘어선 뮤지컬

최근 옛 전남도청이 원형 복원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는 건 의미있지만,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 콘텐츠 중 일부를 인상적으로 본 터라 모 든 게 사라져 버리는 게 못내 아쉽다. 상무관 등 복원되는 공간이 단순히 1980년의 '재현'에 그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사실,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오월 광주'와 둘러싼 이야기는 '반쪽 느낌'이 들 때가 많다. 5월 관련 당사자들 앞에서 쉽사리 다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관련자들의 '오피 마인드'가 전체 된다면 '오월'은 생생한 현재가 될 것이다.

내친 김에 지난해 5월 18일 선곡표를 찾아봤다.쇼팽의 '장송행진곡'과 베토벤의 장례식에 사용됐던 루이지 케루비니의 '레퀴엠', 브루흐의 '인 메모리엄' 등이 선곡됐다. 고레츠키의 '슬픔의 교향곡'과 더불어 올 4월과 5월 '애도의 곡'으로 기억한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 사서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공 지능, 로봇 기술, 생명 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삶의 가치와 행동 방식, 문화와 경제 등 사회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 공동체는 약화되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이웃과의 단남과 소통이 단절되고 전통적인 나눔과 공동체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이 점점 더 심화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

책보다 사람이 먼저 있는 곳, 작은 도서관

하머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 독서 문화 활동, 평생 학습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복합 문화 공간이 절실해졌다. 언젠가부터 마을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곳은 주민이면 누구나가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진열되어 있는 몇 권 안 되는 오래된 책과 잡지를 뒤적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한데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누는 장소였다.

각기 다른 사고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연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한권의 책'이었고 그러한 책들을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다. 전국에는 12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늘여가는 이용자 수용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공공 도서관만으로는 문화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 서비스에 대한 갈등을 느껴온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였다. 이러한

지역 사회 문화 공간들이 점점 더 늘어 2019년 현재 전국에는 606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5조 1항 설치 기준과 지방조례 기준을 보면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의 면적에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작은 도서관은 단지 공간이 작다는 것뿐이지, 독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공간이면서 때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자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즉, 공공 도서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작은 도서관이 맡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성은 작은 도서관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 도서관만 먼저 자료를 연상하게 되고 그 자료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은 뒷전인 일이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은 주민 밀착형으로 접근성이 높고 친화성을 바탕으로 이웃과 또래가 만나서 독서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쉽게 소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지역 사회 통합과 화합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재정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운영자의 부재 등으로 작년 한 해만 130개 관이 휴·폐관하였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광주시는 지난 3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모색하고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종합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가 건립 예정인 다섯 곳의 공공도서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다섯 곳의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제 작은 도서관은 숫자만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활성화가 되어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악한 환경의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비, 적절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 듯이.

기고



조기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 단장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균 쌀값은 20kg 기준 지난 2017년 6월 역대 최저인 3만 1692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해 올해 2월 4만 8231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수확기 정부의 강력한 시장 격리 정책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쌀값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면 2018년에는 정부의 사전적 수급 정책인 '쌀 생산 조정제'가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했다.

쌀값 회복은 쌀 수급 안정에 기인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각각 2.2%(1만 6944ha), 2.6%(10만 4000t) 감소한 73만 7673ha, 386만 8000t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은 2018년 국민 1인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루려면

당 연간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1.3% 감소한 61.0kg으로 발표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2년간은 예년 대비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8년에는 총 목표 면적 5만 ha 중 53.1%인 2만 6550ha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고, 약 13만 9122t의 쌀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올해 작년 대비 5000ha 증가한 5만 50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휴경(지원 단가 280만원/ha) 도입, 조사료(400만 원~430만원)와 두류(280만 원~325만 원)의 ha당 지원 단가 인상, 조사료 재배 보험 도입, 자가 소비 외 조사료 유통은 축협이나 TMR(Total Mixed Ration, 완전 혼합 사료) 공장과 사전 계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쌀 생산 조정제는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이끌고 쌀값을 지지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작년 14만t 내외의 쌀 공급량 감소는 쌀값과 농가 소득 유지에 기여했다. 만약 쌀 생산 조정제가 없

이 14만t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됐다면 회복 후 안정세를 유지되고 있던 쌀값은 다시 폭락했을 수 있다.

쌀 변동 직불금과 관리 비용 등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쌀 변동 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매년 2월경 지급되는 쌀 변동 직불금은 2017년 1조 4900억 원, 2018년 5392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예산 한도 2533억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도 쌀 생산 조정제에 투입된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올해 변동 직불금을 2859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가 쌀값 회복과 이상 기후 및 타 작물 재배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에도 사업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다. 사업 신청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 전국적으로 목표 면적의 8.6%에 불과한 4710ha가 신청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50.4%인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작년에 이어 전남은 목표 대비 18.1% 2105ha를 신청해 신청 면적과 신청률에서 전국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쌀 생산 조정제의 성공을 위해 농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읍면 1단지 농 중심의 타 작물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두류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정부 지급 금액보다 ha당 25만 원을 추가로 인상했고 콩수확기 등을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 종자대와 수확 장비, 사일리지 제조 비용도 지원한다. 또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품목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종자대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업인 홍보와 교육,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해와 같이 지자체와 함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도록 콩 수확기 및 파종기와 같은 농기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들도 쌀 생산 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확기에 적정 생산량이 유지돼 쌀값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社說

어떻게 했길래 공모 사업 번번이 탈락하나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공모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올 들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에 전국 19곳 중 전남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네 곳에서 이차림 크게 늘었음에도 전남에서 도전한 목포, 곡성, 순천 등은 모두 탈락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에도 장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했지만 공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대상지 여덟 곳 중 전남은 하나도 들지 못했다.

로버트 할리도 투약...마약 범죄 특단의 대책을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하 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독배기 하실래요'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진 하 씨가 체포되자 구수환 경장도 사투리와 푸근한 인상에 매사 웃는 얼굴로 각인됐던 그의 평소 모습을 기억하던 시청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조 귀화' 방송인인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마약 남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SK그룹 창업주 손자녀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도 마약을 구매한 정황 포착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창

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해마다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는 인원만 1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검찰청 '2017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10만 명당 19.4명으로 UN의 마약 청정국가 기준(10만 명당 20명)을 밑돌았으나 2017년에는 27.5명으로 급증했다. 이미 마약 청정국가의 지위를 잃은 것이다.

최근 들어 마약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제우편 등을 통한 신종 마약 공급 루트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마약 범죄는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더 늦기 전에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강력한 공조 체제로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소설·수필 등 문학 작품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다. 당연히 작품 속에 팩트(사실)를 담기보다는 현실 속에 있을 법한 일이나 작가의 생각을 담아낸다. 작품 속의 표현은 그래서 사실과 다르더라도 팩트를 다루는 기사와는 달리 웅얼대는 경우가 많다.

작가들은 창작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만 이들의 '문학적 표현'조차 가끔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심하게 어긋날 때가 있다. 평소 SNS를 통해 거침없는 주장을 펴 온 이외수는 비유를 잘못해 지난해 말 두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월에는 단풍 사

문학적 표현

성 비하 비판을 받았다.

올 초에는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언더 더 씨'가 문제가 됐다. 작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과일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쯤 땅 위에서는 달리 웅얼대는 경우가 많다. 8일 광주지법에서 단단하고 맹맹한 과육에 양니를 박아 넣으면 입속으로 흘러들던 새콤하고 달콤한 즙액." 문제가 된 소설 도입부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일자 작가는 '문학적 장치'라고 해명했지만 희생자를 모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거짓 말쟁이라고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측이 '문학적 표현'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광주지법에 나온 전 씨 측 변호인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문학적 표현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작가도 아닌 피고인이 문학적 표현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려 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밖에 없을 듯하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y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국문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62	(FAX 222-0195)	220-0551
220-0663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4	220-0693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220-0642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